

가정 예배 모범

- 2021_03_21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3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찬송가 430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누가복음 20:19-40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침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질문자들의 음흉한 의도를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놓으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가이사가 다스리는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해야 할지 나누어봅시다.

2)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38절)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육체는 죽었을 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비록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들은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영생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